

< 제 7호 >

아주

수학과 소식지

발행인 : 수학과 학과장 이기정

발행일자 : 2018. 09. 13

편집 : 수학과 편집부



목 차

1. 2학기 학사 일정 및 수학과 세미나 일정	4p
2. 학과 소식	6p
3. 안수현 교수님 인터뷰	8p
4. 소학회 소개	10p
5. 아주대학교 장학금 소개 [필독]	11p
6. 수학과 학생들의 후기	
- 날개달린 수학	13p
- 산업수학프로젝트	14p
- 현대수학세미나	15p
- 파란학기	16p
- 교환학생	18p
- 단기파견	19p
- 인턴	20p
- 대학원	21p
- 대학생활	23p
7. 2018년 1학기 행사사진	24p
8. 학생회비 현황	26p

학사 일정, 세미나 일정

학사일정

2018. 9. 13	수학과 개강 총회
2018. 9. 17~20	학술제
2018. 9. 3~28	심화 · 복수전공 신청, 취소, 변경
2018. 9. 20~21	수강신청 포기
2018. 9. 24~26	추석 연휴(대체휴일적용)
2018. 9. 28	2학기 수업일수 1/4 선
2018. 10. 22~26	2학기 중간시험
2018. 10. 26	2학기 수업일수 1/2 선
2018. 11. 02	자연인의 밤 [미정]
2018. 11. 9~10 16~17	데이터 경진대회 [미정]
2018. 11. 23	2학기 수업일수 3/4 선
2018. 11. 26~30	1학기 재학생 전과 신청
2018. 12. 17	보강일
2018. 12. 18~24	2학기 기말시험

아주대학교 수학과 산업수학 세미나 일정

날 짜	연 사	비고
9월 19일 (수) or 10월 5일 (금)	한호수 보험계리사	
11월 2일 (금)	유호찬 대표이사, IT회사 창업 및 경영	
11월 30일 (금)	권혁동 상무, CRO(Chief Risk Officer)	

※일정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연사님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9월 7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수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시 간 : 오후 5:00 PM - 6:00 PM unless otherwise specified

장 소 : 팔달관 621호 unless otherwise specified

문 의 : 문남식 (nsmoon@ajou.ac.kr, 031-219-3883, 연구실 : 종합관 610호)

홈페이지 : <http://math.ajou.ac.kr>

아주대학교 수학과 강연회 일정

날 짜	연 사	소 속	강 연 제 목	비고
9월 14일 (금)	황동선	아주대학교 수학과	Cascades of Fano polygons	
10월 11일 (목)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	불확실한 세계와 거대 정보를 길들이려면	날개달린 수학
10월 12일 (금)	최일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	Coloring the square of a planar graph with girth restrictions	
10월 19일 (금)	박범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Human Brain Connectomics: An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11월 23일 (금)	홍순조	홍익대학교 수학과	Gibbs measures on shift of finite type	
12월 7일 (금)	박한철	제주대학교 수학과	Cup product on the cohomology of the graphical real toric manifold	

시 간 : 오후 5:00 PM~6:00 PM unless otherwise specified

장 소 : 팔달관 621호 unless otherwise specified

문 의 : 권순선 (qrio1010@ajou.ac.kr, 031-219-2562)

홈페이지 : <http://math.ajou.ac.kr>

* 산업수학이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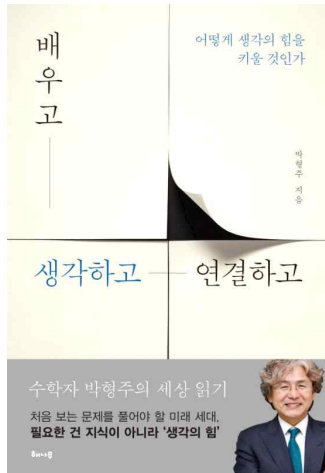
실용수학으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만들어진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학문

* 콜로퀴움이란 ?

세미나와 비슷하나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른 사람들의 미숙한 의견을 바로잡아 주는 점이 다르다. 콜로퀴움은 대학이나 학술 단체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토의 방법이다.

2018-2 학과소식

● 박형주 총장, 신간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펴내



우리 학교 박형주 총장이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 어떻게 생각의 힘을 키울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수학자이자 교육자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교육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박 총장은 이 책에서 앞으로는 지식을 쌓는 일 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필요할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즉 '지식의 양' 보다 '생각의 힘'이 낫다라는 설명이다.

● 박원석(13) 학생, 보험계리사 1차 합격

● 제7회 아주대학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Ajou Programming Contest, APC) Div2 신욱수(2위), 이소영(5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16 유혜인- 3학년 1학기에 ICT복수전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언어'만 수강한 상태였습니다. 코딩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야했습니다. 대회 후에 알고리즘에 관심이 생겨 'ANSI'라는 알고리즘 소학회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게시판을 관심 있게 보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3 신욱수- 이 대회는 컴퓨터 전공자와 비전공자 참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대회로 참가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과 학생들은 컴퓨터 관련 복수전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대회에 참가해보면서 경험도 쌓고 수상실적도 쌓는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취업이나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1학년 때부터 파이썬을 배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부딪혀볼 만한 대회인 것 같습니다.



13 이동진- 안녕하세요. 저는 'Challenge Round'에 참가하여 컴퓨터 비전공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각각 배점을 달리하여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배점이 큰 어려운 문제를 제일 먼저 풀기 시작했고, 그 한 문제를 풀다가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비록 한 문제만을 풀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17 이나정- APC 대회를 참가했을 당시, C언어를 배우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대회에 나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어보자는 목표를 가지며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 규정상 제출한 문제는 바로 채점되었고 점수에 따라 등수가 실시간으로 바뀌어 긴장감이 배가 되었습니다. 대회결과 등수는 낮은 편에 속했지만 대회에 직접 참가해 긴장감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대회에 참가해 경험을 쌓는다면 전공과 취업에 있어 확고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4 이소영- 실시간으로 점수와 등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대회를 진행하는 내내 흥미진진했습니다! 비전공자 세션에는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이 대회가 비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8 아주대학교 산업수학 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 '아산수 데이터 경진대회'란? *

1박 2일 해커톤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활용의 경험을 배우는 캠프입니다.

강연과 교육 및 실습 후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발표로 심사하는 경진대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참가 대상: 수학과 학생 및 타 학과 학생
팀 별로 2~4명까지 구성 가능, 대학원생 지원 환영
(팀 별로 반드시 1명 이상의 수학과 학생이 참여해야 함)
- 날짜: 11월 9,10,16,17일 (금, 토 2주) [미정]
(자세한 일정은 추후 수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안수현 교수님

1. 아주대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 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보건 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 및 방법론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와 더불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학통계 강의를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학의 한 분야로 통계학을 소개하고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통계학을 교육하여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더 많이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수학 이론의 기초지식은 통계학을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주대학교 수학과 학생들이 통계학 이론 및 통계 프로그래밍 능력을 함양하여 보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로 사회 여러 분야로의 진출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2. 수학 과목들 중 통계를 전공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학과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에게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면 수학을 좋아해서 선택했다는 대답을 어렵지 않게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학과에 진학 후 친한 동기를 따라 복수전공으로 통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와 달리 통계학과가 수학과와 독립된 한 학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따라 강남갔습니다. ^^) 참 재미있게도 그 동기는 통계를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하였고 저는 통계학에 매료되어 복수전공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통계학과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통계학은 수학과 매우 밀접한 학문으로 수학과에서 배운 많은 기초지식이 통계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미나와 실습수업을 통해 마케팅 분야에서 통계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 기회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동기가 되었습니다.

3. 2018년도 1학기 처음으로 수업을 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맡은 과목은 '확률 및 통계1' 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고 수용하고 싶었지만 초기에 많은 과제로 학생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 미안함과 동시에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

무엇보다 수업시간을 통해 수학과 학생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기뻛고, 질문 또는 상담을 하러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신입교원 인사 글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톡톡이 저를 찾아와준 학생들 덕분에 조금은 수월하게 학생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수학과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도 학부 때 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학부시절에도 느꼈지만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참 밝고 순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인이 전공하는 학문에 때로는 조건 없이 매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지도학생들을 보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져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론 힘이 들고 고민이 생길 때면 주저 없이 저를 비롯한 교수님들을 찾아와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고민하여 나만의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5. 통계 쪽으로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조언해주세요!

통계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고 접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연현상, 사회현상, 경제현상 등 여러 분야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진로도 다양하고 넓습니다. 가령 생물/의학통계, 경제통계, 환경통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특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분야와 통계학을 접목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각 분야의 실제 문제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 및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병원 연구소에서는 보건의료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예측모형을 개발합니다. 물론 한 분야를 특정 짓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갖고 있는 통계적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순수 이론연구에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과 소학회 소개

MathLab (16 김상민 / 010-4055-1941)

MathLab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장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평소의 공부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에 참가하여 기초수학과목 및 전공과목을 함께 공부하고, 그 과목을 먼저 배운 참관인 학생이 같이 참여하여 자신의 부족한 공부를 같이하거나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의진** 교수님의 지도하에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데이나 각종 학술제에 참가하여 다른 학우들에게 수학에 대해 알리고, 나아가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수학이 보다 보편화될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대학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다른 수학적 저널이나 잡지를 서로 읽어보고 공부하여 세미나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발표함으로써 수학적 마인드를 발전시켜갑니다.

이 외에도 MT, 개강총회 등 수학과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시키고, 재학생과 신입생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와도 친해질 수 있는 학술적 공부와 친목을 동시에 하는 소학회입니다.

MNE (15 이동훈 / 010-8891-8429)

M&E는 수학과 전공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학능력의 향상과 진로 도움을 위한 어학 점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학회입니다. 형식적인 영어 교육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학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M&E에서는 아주대에서 요구하는 공인영어성적을 달성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해외 드라마, 영자 신문 등의 매체로 영어에의 흥미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전공서적 영단어 공부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학업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박보람 교수님의 지도 아래 활동을 구성하고, 일주일에 2번, 1시간 정도 모여서 스터디 및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수업구성은 토익 스터디, 영자 신문·드라마 읽기 및 분석, 전공서적 영단어 스터디 등을 주로 3가지를 병행할 것입니다. 학술적인 탐구뿐만 아니라 소학회 회식 및 MT 등 소학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활동을 통해 신입생을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 생활에 활기를 갖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소학회가 될 것입니다.

PIE (14 임수진 / 010-2631-6499)

PIE(파이)는 People who Interested Education의 약자로, 교육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거나 차후 진로가 교직에 있는 학생들로 이뤄져있습니다. 더불어 수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도 모여서 아주대학교 수학동아리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 **최수영**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여름방학 임용고시 문제풀이 특강'으로 임용고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정한 주제를 발표하는 '파이수학세미나', 셋째로 매년 열리는 '대학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경시대회 준비를 통해 수학을 보다 깊게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문제 만들기 대회로 수학적 사고를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PIE(파이)를 통해 교육대학원에 먼저 진학한 선배님들과 교류를 하며 많은 교육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교직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주대 장학금 소개

◎아주대 재학생 장학

장학명	자격 및 대상	수혜사항
대우장학	단과대학별 학년별 수석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울곡장학 다산장학 원천장학 (성적우수장학)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단, 영어성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함) *학과별로 신청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학과에 장학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함	*울곡장학: 수업료 50%면제 *다산장학: 수업료 40%면제 *원천장학: 수업료 30%면제
학장추천장학 자기개발장학	단과대학 특성에 맞도록 운영	단과대학 자율운영
리더장학A	학생자치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리더장학A: 총학생회장 정, 부	1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리더장학B	*리더장학B: 단대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수업료 70% 면제
리더장학C	*리더장학C: 학과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수업료 30% 면제
아주복지장학 아주희망장학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결과 0~8분위 통과자(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본 장학은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과 등록금 최대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함 *아주복지장학은 별도 신청 필요 없으며, 아주희망장학은 학과별로 신청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학과에 장학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함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본교교직원 자녀장학	본 대학교 및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 자녀(단, 별도의 유지조건이 있음)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의학과 6년)
사회봉사장학	사회봉사실적이 있는 자로 사회봉사센터 및 대학(학과)장이 추천한 자 중 학생처장이 선발	1,000,000원
국가고시장학	*국가고시장학A: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국가고시장학B: 국가고시 1차 합격자 (해당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기술고시, 법원행정고시,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국가고시장학A: 졸업까지의 수업료의 100% 면제 *국가고시장학B: 1년=2개학기 동안 수업료의 100% 면제
국가자격장학	국가자격시험(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1차 합격자	일정금액(200만원) 지원
글로벌장학	각 부서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 국내탐방, 행사 등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으로서 사업 단위별 모집에 의해 선발된 자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 경비
보훈장학	*보훈장학A: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성적이 1.60 이상인 자 *보훈장학B: 보훈대상자(본인), 성적제한 없음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의학과 6년)

새터민장학	*새터민장학A: 직전학기 평점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학생은 다음학기 면제,보조 제한 -북한 이탈주민 본인: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 미만인 학생은 다음학기 면제,보조 제한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의학과 6년)
바르게 장학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결과 0~8분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미래설계, 경력준비, 사회봉사 등 바르게, 다르게, 크게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학업지원금을 지원함	가계곤란도 및 신청자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실사구시장학 (파란학기)	*파란학기 이수자	아주도전 과목 수강 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세계일가장학	*글로벌 해외연수 및 해외탐방 사업대상자	일정금액지급

*별도의 성적기준이 적용되는 장학 외에 모든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0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초과학기 생은 대상에서 제외함.

※ 「바르게 장학」은 2018년 9월 신청서를 접수합니다.(홈페이지 별도공지/학생지원팀 방문)

※ 「아주복지장학」은 2018-2학기 소득분위에 따라 자동 사정되며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 「바르게 장학」, 「아주복지장학」은 학생지원팀(031-219-2038)로 문의바랍니다.

※ 기존 「다르게, 크게」장학은 2018년도부터 아주복지장학으로 통합 운영됨을 유의바랍니다.

※ 학과별로 선발장학 종류 및 신청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학과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공지사항: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 AIMS2 장학신청 시 팝업창 참고)

◎자연대 미래샘 장학

구분	지원 자격
대상	3~4학년 재학생
성적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조건	① 학부 졸업 후 교육대학원 진학예정자 ② 교직이론과목 1과목 이상 수강중인 자

미래샘 장학은 학부 졸업 후 교육대학원 진학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대학원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지급하는 장학입니다. [2019학년도부터는 교육대학원의 특별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라 미래샘 장학 지원이 중단되며, 2018년도까지만 장학금 지원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자격요건★

① 교수님 면담 ② 공인 영어 성적

(※ 2018년도 1학기 수학과 소식지를 참고하세요!! ※)

장학 신청기간, 수혜 대상,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될 것입니다. 학교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장학신청에 성공하세요!!

날개달린수학 후기

<수학으로 이끄는 민주사회 (강연자: 바둑기사 조혜연)>

1. 이번 강연을 통해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 평소에 알지 못했던 바둑의 기초 규칙을 알 수 있었고, 바둑과 수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바둑과 수학의 공통점을 설명하면서 '눈이 떠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나 또한 수학에 인생을 쏟으며 눈을 뜨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 수많은 경험을 했더라도 끝없는 배움이 있는 바둑처럼 수학 또한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랐어도 학문의 길은 높고 넓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내가 수학에 인생의 몇 %를 배분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내가 진정으로 수학에 대한 공부를 해왔는지 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2. 강연을 듣고 더 알고 싶었던 점이 있나요?

- 강연자님께서 자신의 전공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점들에 대해 알고 싶다. 그 뿐만 아니라, 만 14세에 프로기사가 된 경위나 바둑에 빠지게 된 이유, 그리고 인생의 여러 분야 중에 어느 분야에 본인의 인생을 배분하셨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기사님의 인생 스토리가 궁금하다.
- 바둑에서, 로봇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통해 상황판단을 하는지 궁금했다.

3. 강연 내용 중 흥미롭게 느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모든 일에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닌 '절대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학문을 공부할 때에는 '눈을 떠야한다'는 말씀과 타 분야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연자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 강사님이 어린 나이에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프로기사가 되셨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스스로 전문가가 되려면 고독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 사회에서 큰 이슈였던 '알파고'에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었다.
- 강연자님께서 자신이 삶의 굴곡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다시 일어서게 된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 날개달린 수학이란 ?

아주대학교 수학과 **학부생을 위한** 콜로퀴움 강연회로 매학기 1회 개최되는 아주대학교 수학과 의 대표 행사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콜로퀴움보다 학부생이 접근하기 쉬운 주제를 다룹니다.



15 김혜주

일상생활에서 찾아내는 수학

수강과목 : 산업수학프로젝트2 (캡스톤 디자인)

팀원 : 권해민, 김혜주, 양창수

지도교수 : 정의진 교수님

프로젝트 주제 : 게임으로 구현 가능한 확률 집합의 특성과
이순신 게임 시뮬레이션

안녕하세요. 수학과 복수전공으로 경제학을 배우고 있는 15학번 김혜주입니다. 제가 수강한 산업수학프로젝트는 이론을 배우는 과목이 아닌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스스로 정해서 수학을 통해 풀어나가는 과목입니다. 저는 하나의 문제를 통해 서로 의논하고 같이 고민해가면서 수학을 사용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두 명의 동기들과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팀원을 모아서 주제를 정해 이 과목을 수강하지만, 저희는 특별하게 정한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도교수이신 정의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주제의 틀을 잡아갔고, 그 결과 '게임으로 구현 가능한 확률 집합의 특성과 이순신게임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으로 구하고 싶었던 것은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 집합을 안다면, 우리가 MT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마시게 되는 술의 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으로 구현 가능한 확률 집합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2학년 때 수강했던 확률 및 통계에서의 지식과 관련된 과목들을 공부해가면서 내용을 채워갔습니다.

그 후 술 게임 중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게임'으로 한정해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배팅이 있는 게임이라 사람의 심리를 잘 반영해야했고, 현실에서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나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기준으로 가정하였으며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에 대한 누적 술의 양의 분포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토의해가면서 가장 현실적인 배팅 양을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깔고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함수를 저희 스스로 설정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고, 저희가 예상했던 양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프로젝트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산업수학프로젝트1 과목으로 경험이 있던 두 팀원 덕분에 원하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으로 더 많은 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Buffon's Problem과 같은 흥미로운 확률 문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과목이라고 어렵다고만 생각했지만 막상 수강하니 배워가는 게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디에 쓰일지는 수학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공부에만 지쳤던 수학과 학부생이라면 마음이 맞는 동기 혹은 선후배님들과 팀을 꾸려서 평소 궁금했던 문제를 수학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 산업수학프로젝트를 수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보다 GO~

안녕하세요.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송주입니다. 이번 1학기에 저는 '현대 수학 세미나'라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수학의 여러 첨단 분야에 대해 다루고 연구하는 수업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수리생물학(Mathematical biology)을 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 학기 수업의 마무리는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하게 됩니다.



16 조송주

4인 1조로 <Finding the Clean Zone of Ajou University Using Navier-Stokes Equation>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재훈 교수님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4~6월 경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미세먼지를 수학적 방법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네비어-스토크스 방정식으로 유체(공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우리학교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을 알아내기 위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약 한달 반의 기간 동안 구글 어스를 통해 우리 학교 건물의 좌표를 매트랩으로 불러오고, grid에 표현한 다음, 네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을 풀어 우리학교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곳을 찾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비록 완벽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다음의 더 나은 연구를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모든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무려 4개나 알아야 했고, 처음 보는 방정식을 사용하려다 보니 실제 연구시간보다 교수님께 배우고 조언 듣는 시간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뿐 아니라 보고서와 최종 발표까지 준비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느끼는 보람은 상당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조 뿐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조의 발표를 보고 흥미로운 내용도 알게 되고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하기 전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프로젝트 전까지만 해도 관련 배경지식은 거의 없었고 주제를 정하고 나서 전부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아는 것 없고 자신감마저 없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민보다 먼저 부딪쳐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들처럼 하나의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하거나 연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현대 수학 세미나(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학기 후기



13 이동진

터닝포인트가 된 한 학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정재훈 교수님의 지도 하에 《데이터 기반 사회의 이해와 사회적 모델 구축》을 주제로 파란학기를 진행한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저 외에 신옥수 학생과 유성현 학생이 같은 팀으로 파란학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란학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 팀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파란학기가 무엇인가요?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도전을 독려하고 필요에 따라서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교내의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참가자들은 지도교수나 외부 전문가의 밀착 지도 하에 과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설계한 도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3~18학점의 정규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한 경비를 3학점 당 30만원 이내에서 장학금 형태로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도전 과제의 주제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자기 전에 상상했던 창업 아이디어, 관심 있는 학문적 연구 등 무엇이든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바쁜 일정이 부담스러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꿈들을, 파란학기를 통해 학교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Q.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드시피 저희 팀의 도전 과제 이름은 《데이터 기반 사회의 이해와 사회적 모델 구축》입니다. 프로젝트는 4달 동안 진행되었고,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두 달 동안에는 《데이터 기반 사회의 이해》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빅 데이터를 선두로 다가오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각각의 산업혁명들은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몰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은 제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찬란할 것만 같은 혁명과 혁신 뒤에 숨어있는 인문·사회적 문제점들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달 동안에는 《기계학습 기반 특정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예측》을 주제로 사회적 모델 구축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같은 팀의 신옥수 학생이 제안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 또는 미세먼지 어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된 미세먼지 농도는 사실 내 위치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니고,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농도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착안하여, 측정소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파란 학기를 진행하면서 모델의 주제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모델 구축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재훈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며, 현재는 위상적 데이터 분석과 딥러닝을 통한 미세먼지 농도 예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사실 저는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진행하는 열정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강의시간에 교수님들이 해주신 필기를 열심히 따라 적고 달달 외우기만 하는, 흔히 말하는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대학 생활이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을 무렵 파란 학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팀 모임에서 처음으로 파란학기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제게 없는 열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꿈 꾸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자신감.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저의 도전 정신에 불을 키워주었습니다. 파란학기 전과 후 저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실패로 끝나든, 성공으로 끝나든 일단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층 성장한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교환학생 후기



14 김민송

후회없던 대학생만의 특권, 교환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학기 독일 Schmalkalde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14학번 김민송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교환학생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학기마다 공지사항에 교환학생 모집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청할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했었습니다. 타지로 장기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학기가 되었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졸업을 하면 평생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 순간의 용기 있었던 선택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제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는 독일 중부의 튀링겐 주에 위치해 있으며 큰 도시들과는 거리가 멀어 매우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마을이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을 모두 들을 수 있었는데 외국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 새로웠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기에 수업 중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팀 프로젝트의 경우 발표를 할 때 영어로 말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학기 지내다 보니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영어 사용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영어가 문법, 독해와 같은 이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학기 중에는 실생활에 쓰이는 영어 회화를 통해 실용적인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배우는 교양 수업에 참여한 이후로 독일어를 마치 영어처럼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문장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과 외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고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처럼 수업이 없는 날이면 독일 내의 다른 도시나 인근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독일의 지리적 요건 때문에 기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비록 독일 자체의 영토가 매우 커서 이동 시간이 제법 걸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것과 비교해보면 훨씬 여행이 간편합니다. 이런 장점을 잘 이용하여 알차게 이 곳 저 곳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교환학생에 대해 고민하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 기회를 잡고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간 외국에서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히 오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제도는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주대학교의 경우 교환학생제도가 잘 되어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훗날 기억에 남을 행복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기파견 후기

생생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계방학에 2주 동안 단기파견으로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수학과 15학번 한상지입니다. 단기파견은 국제교류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동안 외국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15 한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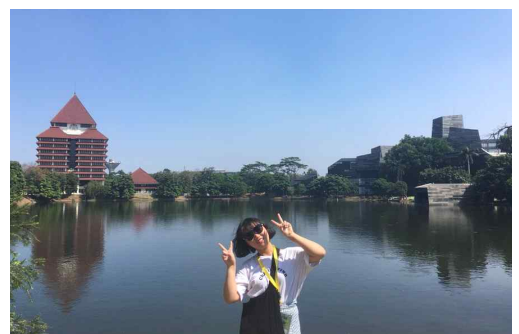
단기파견은 매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가 뜹니다. 한 학기에 보통 5개 학교로 그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와 학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인도네시아 학교는 학점과 토익점수, 자기소개서만 필요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또한 학점 인정이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3학점을 이수할 수 있었고 점수는 pass 또는 fail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University of Indonesia라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도 듣고, 여행도 가고, 인도네시아 문화도 배웠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회화 실력이 향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학교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현지 음식점이나 인도네시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친해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중국, 일본 친구들과도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학교에서 함께 갔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항공비, 생활비 정도만 필요했습니다. 조식과 점심은 제공되었고 숙소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학교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지내기 때문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동남아시아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가기 전엔 편견도 가지고 있었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대부분이라 억압받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밝고 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도 배우고 공부도 하며 학점도 이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니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후기



망설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에서 인턴근무를 했던 15학번 김채영입니다. 제가 근무 했던 부서는 비철, 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상품(선물/옵션)을 증개하는 부서인 Global 파생상품본부입니다. 이번 인턴이 제겐 첫 회사경험인데, 비록 주요업무는 어렵지 않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5 김채영 처음 한 달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주가, 유가, 원·달러 환율 시황을 모든 직원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30 산업, S&P 500, 나스닥 종합 지수의 현재가(한국시간으로 전날 폐장시간)와 WTI, brent유가의 현재가, 전일 대비 증감률, 실시간 원·달러 환율지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신문처럼 만들어서 보고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쓰면서 주식, 환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지금은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경제기사를 읽는 습관이 생길 만큼 흥미가 생기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업무로는 order ticket(주문전표)를 관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order ticket이 대신증권 프로그램에 잘 입력되어있는지 검토하고, average, HPC, transfer, OTC 등 거래의 종류에 따라 티켓을 분류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거래방법들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거래소 APEX의 운영방식과 EU-ETS(유럽 연합 배출권거래제)의 거래제도, 방식, 거래량 등을 조사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료조사를 할 때 자료의 90%이상이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부족한 저에겐 조금 어려웠고, 매일 5시 30분 기상과, 8시 근무 시작이 피곤해서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서 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하면서 만족스럽게 다녔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나 금융공학과 복수전공이 아닌 금융트랙만 이수한 상태여서 이론지식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무경험은 모두가 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해서 뒤쳐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경계열 전공 인턴들과 똑같이 모르는 것이었기에 똑같이 배워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망설이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인턴경험을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계학습, 대학원에서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수학과 12학번 졸업생 원민섭입니다. 저는 2018년도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여 정보 및 지능시스템 연구실에서 현재 석사 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주로 기계학습, 딥러닝을 활용한 기업과제 및 개인 연구를 하고 있고, 관심 분야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2017년도 수학과 학우들과 빅데이터 경진 대회인 '빅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한 계기로 더욱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 들어오면서 느낀 학부랑 다른 점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하게 출퇴근 개념이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연구실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그에 따른 월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학비 관련해서는 연구실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원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행정 업무, 기업 과제를 하면서 제안서를 써야 하는 등 생각보다 공부 외의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과제를 하면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실제 데이터에 기계학습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계학습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쪽 관련 연구실이 요즘 인기가 많아서 대학원 입학하기 최소 6개월 전에 교수님께 연구실 관련 컨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도 알파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분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여 훗날 인공지능 분야의 큰 획을 긋기를 바랍니다.



12 원민섭

대학원 후기



12 양혁진

교육대학원, 기초부터 차근차근!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12학번 양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 수학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후배들 중 몇 명이 타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육 관련 분야(교사, 강사, 교재집필 등)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학부 졸업으로는 스스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타 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학점이 좋지 않아 2학년부터 계절학기 와 학기 중에 틈틈이 재수강을 했고 3,4학년 때는 열심히 하여 괜찮은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대학원 입학사례를 찾아봤을 때 학점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학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재수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학년 2학기가 되어서 대학원 입학원서를 내야 할 시기가 되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저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졸업을 유예하면서 대학원 준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개론, 현대대수, 위상수학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였고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에 언급되는 복소함수, 선형대수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복습하였습니다. 5~7개년 정도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연세대 대학원과 고려대 대학원을 둘 다 합격했고 교수님들과의 상담 끝에 고려대 대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육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고 커뮤니티 같은 것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 혼자 준비하려면 막막하고 힘드실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준비하시다가 혹시나 궁금하거나 조언을 얻으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학교육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수학과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신입생 대학생활 후기



18 송민규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수학과 18학번 송민규입니다. 재수를 해서 들어온 만큼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내기배움터와 과MT를 다녀오면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고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며 학기를 보냈습니다. 한 학기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말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수학과 18학번 용희원입니다. 아주대 수학과에 합격한 뒤 어떤 대학생활을 할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차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좋은 동기들, 선배님들을 만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한지 벌써 한학기가 되었네요. 다양한 소학회들을 가입해 활동하고, 엠티나 해오름식에 참여해 좋은 추억들을 쌓으면서 알찬 한 학기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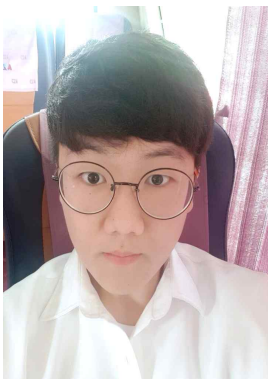


18 용희원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수학과 18학번 이민경입니다. 새내기 배움터에서 동기들과 선배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면서도 여러 걱정들이 앞섰지만 좋은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서 1학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자연과학대학 소학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대동제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과 선배들과 갔던 MT, 동기들과 갔던 MT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것 같아요.



18 이민경



18 박상빈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수학과 18학번 박상빈입니다. 처음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내기배움터나 MT같은 활동들 덕분에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걱정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대학생활과 재밌는 동아리 덕분에 1학기가 빨리 가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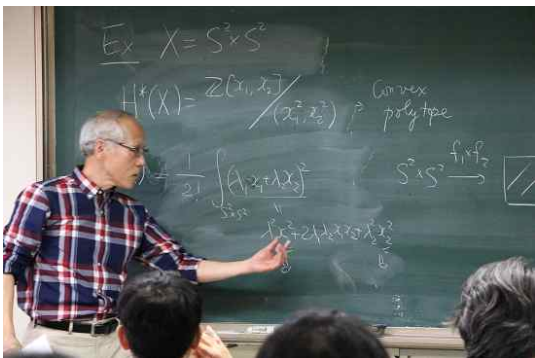
2018년 1학기 행사



2018.03.09 콜로퀴움



2018.03.15 개강총회



2018.03.16 콜로퀴움



2018.03.30 산업수학세미나



2018.04.19. 간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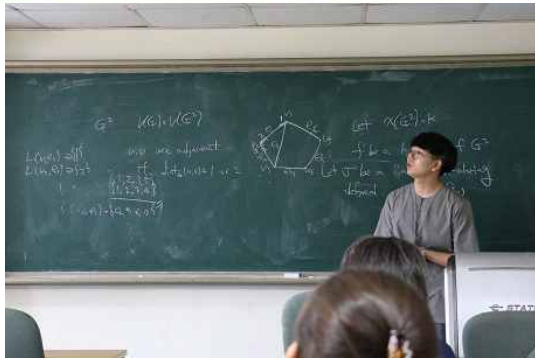
2018.05.02. 날개달린수학



2018.05.04. 졸업생 초청강연



2018.05.09. 대학원 설명회



2018.05.09. 대학원생 세미나



2018.05.15. 스승의 날



2018.05.25. 아주 데이터사이언스포럼



2018.06.12. 위상조합세미나



2018.06.14. 간식사업



2018.06.14. 석사학위 논문세미나

학생회비 현황

	집행일시	행 사 명	세부집행내용	수 입	지 출	잔 액
1	18.01.02	학생회 통장개설	학생회 통장개설	1,000	-	1,000
2	18.01.03	학생회비 인수인계	학생회비 인수인계	632,583	-	633,583
3	18.02.01	결산이자	결산이자	29	-	633,612
4	18.02.27~18 .03.01	신입생 실험복+계산기 공동구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	18.02.28	학생회비 분배	자연대로부터 수학과로 학생회비 분배	2,160,660	-	생략
6	18.03.01		공동구매 종료			2,794,272
7	18.03.02	결산이자	결산이자	225	-	2,794,497
8	18.03.14	개강총회	개강총회 포스터 제작 (A3용지 3장)	-	2,100	2,792,397
9	18.03.21	수학과 총MT	학생회원(10,000원)×5명+일반 학생(16,000원)×20명	370,000	-	생략
10		수학과 총MT 물품	안주 구매(마카로니) 배송비(3,000)+수수료(1,000)	-	14,500	생략
11		수학과 총MT 물품	쿠팡 물(2L × 12개입 × 3) 화이트에몽(180ml×24개입)	-	38,460	생략
12	18.03.22	수학과 총MT 물품	고기(삼겹살10kg,목살2kg)	-	117,000	생략
13		수학과 총MT 펜션	수학과 총MT 펜션비+수수료(1,000)	-	781,000	생략
14	18.03.24	수학과 총MT 장보기	수학과 총MT 장보기	-	292,820	1,918,617
15	18.04.02	결산이자	결산이자	2,170	-	1,920,787
16	18.04.17	중간고사 야식사업	왕순이 주먹밥 (3,000×60) + 입금 수수료(1,000)	-	181,000	1,739,787
17	18.05.02	결산이자	결산이자	1,625	-	1,741,412
18	18.05.10	스승의 날	(쿠팡) 차카니샵 5000 카네이션브로치 카드 브로치 (4,000×17) + 배송비(2,500)	-	70,500	1,670,912
19	18.06.01	결산이자	결산이자	1,516	-	1,672,428
20	18.06.05	기말고사 야식사업	푸드테라피 날치알 볶음밥(3,000×35) 힐링 볶음밥(3,000×30)	-	195,000	1,477,428
21	18.06.26	학생 장려금	수학과 최수영 교수님 학생회 장려금	50,000	-	1,527,428

※신입생 공동구매를 학생회비 통장을 통해 진행하여 공동구매 내역은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학과 학생회 또는 수학과 편집부에 문의하세요※

MEMO



자유기고 안내 !

아주대학교 수학과 편집부에서는 소식지를 꼭 채워 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 관련 활동 후기, 수학 도서 후기, 수학과 행사 참여 후기(대학생활 후기), 수학과 문의사항... 등등등 다양한 이야기들 또는 함께 보고 싶은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제출방법 : 한글파일(hwp)에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분 량 : 한글파일 반 페이지 이상 (A4기준)
- 보내실 곳 : cc6575448@naver.com
- 문 의 : cc6575448@naver.com